







#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의 이야기는 통지들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친 최생적인 이 야기도 아니며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는 가치있는 의학적발명을 한 탐구의 이야기도 아니다.

20여년간 한부들과 말전소로 통제급의 건강증진을 위해 목적이 현장치료대 활동을 벌리온 정명한 보건일군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어머니당은 이들의 원심을 수천의 석한과 수만명의 청진을 더 생활해내 위험처럼 온 나라가 일도록 깊어지니 내세워주었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하시였다.

《보건부는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면 고난의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사랑과 헌신에 보건일군의 영예와 긍지가 있다

북창군 인민 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20여년간 실여종에 달하는 수 만명의 보건용 해출대 대 한 간극한 교사를 주시였다. 그 날밤 오침수동무는 오래도록 생각했다.

《한방에서는 한부들이 분초를 초개가 머물고 빙그려는데 왜 진작 그들을 찾아가 의료봉사를 했습니까?》

정명 무침히 대할수 없는 수

그의 이 걸심은 병원장조직과 치과분원의 의료일군들의 전적인 지지로 받았다.

이때부터 한방들에 대한 북창군인민병원 치과분원 의료일군들의 현장치료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석한증으로 들끓는 전통의 정에서 의료인 군들을 맞이한 한

평의 일군들과 한부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현장치료대 성원들은 판평일 군人们的 거울되는 웃고고 미디하고

경인구에 치료대를 전개하고 제일에 치료장을 차리고 한방과 함께 생상적으로 격진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사

우리민족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 더욱한 치료사

임상과 치료를 통해 아름다운

한방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북창군인민병원 치과분원의 어느

한 방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불빛이 꺼졌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판평마을에 사는 특유형에 군인을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광경에 그가 물려준 이야기가 나와서는 판평마을을 떠나지



